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7. 27.(목)

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·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·관리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동아일보, 7.27) >

◈ 층수 높이고, 용적률 초과.....“배짱 재개발-재건축 갈등”

- 입찰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용적률, 층수 제안
- 임대주택 제로, 이주비 지원, 고분양가 약속 등의 문제도 발생

□ 재건축·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**시장질서를 교란**하고, **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**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 상 **엄중 조치**하고 필요한 **시정명령** 등의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□ 우선, **서울시**는 금번 압구정 3구역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신통기획안과 조합의 설계공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안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**고발(7.11) 등의 조치를 취한 바** 있습니다.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을 개정하여, **이주비** 등과 같은 **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안**하는 **건설업자**에 대해서는 **과징금을 부과**하거나 **입찰참가 제한**을 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**제도를 강화**해 나가고 있습니다.

□ **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**하는 행위가 있거나, 인·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**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**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엄중 조치하도록 **관리·감독을 강화**하고,

○ 관리·감독 과정에서 **긴밀히 협력**하면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시행을 위해 **필요하거나 미흡한 제도**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	책임자	과 장 박용선 (044-201-3383)
		담당자	사무관 배윤형 (044-201-3384)
			주무관 임상헌 (044-201-3390)
	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	책임자	과 장 김장수 (02-2133-7130)
		담당자	팀 장 장지광 (02-2133-7136)
			주무관 박성운 (02-2133-713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